

# 이강인 허벅지 부상... A매치 출전 불발·AG도 불투명

(아시아게임)

PSG “왼쪽 대퇴사두근 다쳐 9월 15일 A매치 휴식기까지 치료”  
‘클린스만호’ ‘황선홍호’ 차출에 예상치 못한 변수 생겨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허벅지를 다쳐 9월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를 소화할 수 없게 된 데다 황재우 아시아게임 출전도 불투명해졌다.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은 22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이 왼쪽 대퇴사두근을 다쳤다. 최소 A매치 휴식기가 끝날 때까지는 치료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SG는 이강인이 언제 해당 부위를 다쳤는지 등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이강인은 지난 20일 프랑스 리그1 툴루즈와 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 51분간 그라운드를 누볐으나 부상 장면이 중계 등에 포착되지는 않았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자리에 따르면 리그1은 현지 시간으로 9월 15일까지 A매치 휴식기가 이어진다.

위르겐 클린스만,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과 아시아게임 대표팀 모두 비상이 걸렸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17일 비대면 기자 간담회에서 이강인을 9월 A매치에 차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부임 후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클린스만호로서는 손흥민(토트넘)에 이어 공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강인의 이탈이 뼈아프다.

이는 이강인의 합류를 누구보다 원하는 황 감독에게도 비하다.

황 감독은 9월 A매치 기간 시작과 함께 소집하는 아시아게임 대표팀 훈련에 이강인을 부르길 원했으나 일단 클린스만 감독에게 양보해야 했다. ‘클린스만호 선발 뒤 황선홍호 합류’로 이강인 차출 문제가 정리되는 분위기였다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이다.

PSG의 발표처럼 9월 15일까지 치료에만 전념한다면 실전 감각이 떨어진 ‘에이스’가 아시아게임 직전에야 합류하는 모양새가 된다.

황선홍호는 9월 19일 조별리그 E조 상대인 쿠웨이트와 아시아게임 1차전을 치른다. 이후 21일 태국, 24일 바레인과의 맞붙는다.

아시아게임과 올림픽은 소속팀이 의무적으로 선수를 내줘야 하는 대회가 아니다.

다만 이와 관련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이 PSG와 계약할 때 영리하게도 구단이 아시아게임 차출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PSG)이 왼쪽 대퇴사두근 부상을 입어 국가대표팀과 아시아게임 대표팀 모두 비상이 걸렸다.

/연합뉴스

## KIA 이의리 어깨 통증은 ‘단순 염좌’

부상·부진 변수에  
‘플랜 B’ 일찍 가동될 듯



이의리의 어깨 통증으로 비상에 걸렸던 KIA 타이거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부상·부진 변수로 KIA의 ‘플랜 B’가 일찍 가동될 전망이다.

KIA는 지난 22일 KT 위즈와의 원정경기에서 4-8 재역전패를 당했다.

선발 이의리가 4회가 끝난 뒤 어깨 통증으로 강판됐고, 1-2로 뒤진 6회초 역전극을 펼치고도 6회 말 투수 임기영의 야수 선택, 포수 김태근과 1루수 최원준의 실책이 이어지면서 이내 재역전을 허용했다.

무엇보다 팬들의 애를 태운 건 이의리의 어깨였다.

이의리는 강판 뒤 바로 병원을 찾았고 23일 재검진 결과 단순염증(견쇄관절 부분 염증)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큰 부상을 피한 이의리는 일단 엔트리에서 말소,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앞서 양현종이 잇단 부진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가 복귀를 앞두고 있고, 이의리까지 쉬어가게 되면서 KIA의 ‘플랜 B’가 치열한 순위 싸움 결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KIA는 9월을 앞두고 다양한 경우 수를 준비해 가는 했다. 확대 엔트리가 적용되면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데다, 9월 말 황재우 아시아게임이 열리면서 선발 이의리, 필승조 최지민, 톱타자 최원준의 공백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했던 양현종의 부진, 이의리의 부상으로 KIA의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일단 23일 KT전이 비로 취소되면서 이번 저는 대체 선발 없이 풀어나갈 수 있다.

하지만 투수들에게는 예민한 어깨 부위인 만큼 차분하게 이의리의 회복 상태를 지켜봐야 하고, 양현종의 복귀전 성적도 봐야 한다. 여기에 최원준과 김도영도 공·수에서 부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두 선수의 활용법과 야수진 운영도 중요한 과제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퓨처스 선수단에 눈길이 쏠린다. 올 시즌 퓨처스 선수단을 이끌고 있는 손승락 감독은 “준비는 다 됐다”고 말했다.

달달 변수에 대비해 준비했던 김건국, 김재열이 최근 1군에 다시 합류했고, 황동하는 지난 20일 삼성전에서 88분간의 우천 중단 약재에도 4.2이닝을 3실점으로 막으며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냈고, 다음 콜업을 준비하고 있다. 23일에는 퓨처스 ‘주장’ 오선우가 시즌 처음 1군에 등록됐다.

손승락 감독은 “1군에서 빠지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 오선우도 이번에 합류했고, 1군에서 내려온 김규성도 다시 좋아진 모



지난 22일 KT와의 경기에서 어깨 통증으로 4회를 끝으로 물러났던 KIA 이의리가 병원 검진 결과 단순염증 소견을 받았다. 23일 엔트리에서 말소된 이의리는 선발 등판을 한 뒤 쉬어갈 예정이다.

(KIA 타이거즈 제공)

습이다. 박정우, 김석환도 잘하고 있다”며 “기회가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 2군에서 했던 멘탈 그대로 하면 1, 2군을 오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좋지 않은 결과가 이어지면서 KIA 플레이어가 경직된 모습이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새 얼굴들의 과감한 플레이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퓨처스리그 남부리그 최하위를 맴돌던 KIA는 올 시즌 44승 44패, 5할 승률로 3위에 자리하고 있다.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면서 만든 결과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올 시즌 퓨처스 선수단에는 규제와 자율이 공존하고 있다. 올해 프로 18년 차인 김건국도 퓨처스에서 배트보이 역할도 하고, 등판이 없는 날에는 덕아웃에서 후배들을 응원한다. 경기할 때는 그라운드 자유의 무대다.

손승락 감독은 “성적을 내려고 하지는 않았다. 선수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코칭스태프, 프런트가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가지고 있던 기량이 나오는 것 같다”며 “대신 룰은 확실히 지켜야 한다. 그 전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새로운 문화가 잡혔다. 특히 1군에 있었던 선수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그 선수들이

모범을 보여야 다른 선수들도 꿈을 가지고 간다. 룰을 엄격히 지키기 게임 할 때는 마음껏 해볼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손승락 감독이지만 경기 중 강조하는 부분은 있다. 최선을 다한 플레이, 피하지 않는 승부다.

손승락 감독은 “타자들이 경기를 하면 1루까지 4번 정도 된다. 돈을 받고 뛰는 프로선수가 4번을 뛰면서 전력 질주 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1군 선수가 와도 그런 플레이를 하면 바로 교체한다. 실수, 실책은 괜찮다. 게임 할 때는 선수가 없다. 매번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투수에게는 공격적으로 하라고 한다. 홈런 맞고, 안타 맞는 것은 상관 없다. 도망가는 플레이를 하면 뭐라고 한다. 내가 원하는 방향을 알기 때문에 선수들도 공격적으로 변했다. 포수들도 2스트라이크 이후 더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다. 유리할 때 공격적으로 한다면 상대가 더 어려워 한다”고 말했다.

두려움 없이, 공격적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외쳤던 손 감독의 주문. 자신감을 키운 퓨처스 선수단이 위기의 9월을 기회의 9월로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여자핸드볼, 일본 제압 11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25-24 진땀 역전승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적지에서 열린 한일전에서 역전승을 거두고 11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뤄냈다.

헨리크 시그넬(스웨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23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 예선 마지막 4차전에서 일본에 25-24로 이겼다.

홈코트의 이점을 등에 업은 일본에 어렵게 승리한 한국은 4전 전승으로 예선을 1위로 마쳐 올림픽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중국, 카자흐스탄, 인도까지 5개국에 참가해 풀리그로 치러진 이번 예선에서는 1위 팀에만 올림픽 본선행 티켓을 준다. 이날 한일전에서 이긴 팀이 본선행을 확정하는 상황이었다.

3승 1패로 2위를 한 일본은 다른 대륙 국가들과 겨루는 최종 예선에서 올림픽 본선행을 위한 마지막 도전에 나선다.

남녀를 통틀어 최다 올림픽 본선 연속 진출 기록을 보유한 한국 여자 핸드볼은 이번 대회를 통해 이 기록을 11회로 늘렸다.

한국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대회부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올림픽 본선에 올랐다. 이 중 2004년 아테네 대회와 2008년 베이징 대회를 제외하곤 모두 아시아 예선을 통해 올림픽 무대로 직행했다.

지난 4월 선임된 시그넬 감독은 데뷔 무대에서 한국에 올림픽 본선행 티켓을 안겨 지도력에 더욱 힘을 받게 됐다.

한국의 공격이 일본 골키퍼 가메타나 사쿠라의 선방에 막히거나 턴오버로 멈춰 좀처럼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한 가운데 일본이 요시도메 유키, 나카야마 가호 등의 연속골로 순식간에 5-0까지 달아났다.

시그넬 감독이 부른 작전타임으로 전열을 정비한 한국은 전반 5분 40여초에 나온 김보은(삼척시청)의 골로 본격적인 추격을 시작했다.

한국은 전반 26분 50여초에 이미경(부산시청공단)이 우중간에서 높이 뛰어오르며 날린 슈트로 13-13, 첫 동점을 만들었다.

후반 11분 10여초에는 이미경이 정면에서 수비벽 위로 던진 슈트로 한국에 19-18로 첫 리드를 안겼다.

점점이 이어진 가운데 후반 27분 10여초에 신은주(인천시청)가 한국이 24-23으로 한발 앞서나가게 하는 득점을 올렸다. 이어진 일본 공격이 불발되며 한국이 승기를 잡았다. 후반 29분 류은희(형기리 고리)의 슈트 골망을 흔들면서 승부의 추는 한국 쪽으로 확 기울었다.

선수들은 파리행이 확정되자 시그넬 감독을 행가래 치며 기쁨을 나타냈다.

김보은이 가장 많은 6점을 올렸고, 신은주와 류은희, 강경민(광주도시공사)도 4골씩을 넣으며 힘을 보탤었다.

/연합뉴스

## 우상혁, 다이아몬드리그·AG서 다시 도약

9월 1일 스위스 DL에 출전

메달 획득을 노리고 2m36에 도전했던 우상혁(27·용인시청)은 떨어진 바를 보며 아쉬움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밝은 얼굴로 관중석을 향해 두 팔을 들어 인사했다.

2회 연속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메달 획득의 꿈은 물거품이 됐지만, 실의에 빠질 시간은 없다.

우상혁은 2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3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29를 넘어 6위에 올랐다.

지난해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2m35를 넘어 한국 육상 최초의 세계육상선수권 은메달리스트가 된 우상혁은 부다페스트에서도 메달 획득을 노렸다. 세계육상연맹은 우상혁을 우승 후보 중 한 명으로 꼽기도 했다.

하지만, 우상혁은 부다페스트에서 노메달의 시련을 겪었다.

이번 대회 결과는 아쉽지만, 우상혁의 경쟁심을 자극하는 대회는 연이어 열린다.

우상혁은 9월 1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리는 다이아몬드리그(DL)에 출전할 예정이다.

다이아몬드리그 포인트 14점으로 현재 5위인 우상혁은 취리히 대회에서 승점 5를 추가하면 자격으로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진출 자격을 얻는다.

남자 높이뛰기에서는 총점 상위 6명이 파이널에 진출하며, 올해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은 미국 유진에서 9월 16일과 17일(현지시간)에 열린다.

지난해 우상혁은 다이아몬드리그 랭킹 포인트 총 16점으로 7위를 해, 17점으로 6위에 오른 안드레 프로첸코(35·우크라이나)에게 1점 차로 밀려 파이널 진출권을 놓쳤다.

2022 도하 대회 우승(8점), 모나코 대회 2위(7점)로 선전하고도 8월 22일 로잔 대회에서 컨디션 난조로 8위에 그친 탓이었다.

우상혁은 지난 2일 공개 훈련을 한 뒤 “지난해에는 세계선수권(2위)을 치른 뒤 마음이 봉 땀 상태여서 로잔 대회에 나섰다. 올해는 다를 것”이라며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에 진출해 무거운 것(다이아몬드 파이널 우승 트로피)을 들고 오겠다”고 다짐했다.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놓친 터라, 한국 육상 최초의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진출에 대한 의욕은 더 커졌다.

/연합뉴스